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湊의 八月踊¹⁾

좌 혜 경*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춤의 진행과 유형 |
| II. 춤의 기원 | V. 음악적인 특성 |
| III. 춤의 起緣과 민속적인
배경 | VI. 가사의 특성 |
| | VII. 결 어 |

I. 머리말

한국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강강수월래는 순수한 민속춤으로 추석(음력 8월 15일)의 대보름 달 아래에서 여성들이 원을 만들어서 추는 群舞이다.

달밝은 밤, 소녀들이나 여성들이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 또는 평평한 뒷동산에 올라 손을 잡고 발을 맞추면서 圓舞를 춘다. 선창자가 선소리를 하면 뒷소리 후렴은 남은 사람 모두가 제창을 하는 데, 주로 후렴으로 불려지는 가사는

* 제주대 강사

- 1) 이 글은 1999년도 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調査「環東中國海에 있어서의 두 周邊文化에 관한 研究」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15일부터 1999년 8월 30일에 日本 奄美에서 현장과 문헌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조사단장 津波高志, 교수님과 琉球大學) 더위를 무릅쓰면서 정성껏 도와준 門碑文學 파트 일본 측 대표인 鈴木寬之(琉球大學) 교수님, 친절히 이방인을 맞아 자료를 제공해 준 현지 주민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강강수월래’ 혹은 ‘강강술래’이다.

강강수월래는 1965년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전수 보존되고 있다.

日本 奄美(아마미) 名瀨市(나제시) 小湊(고미나토)에서 필자는 이와같은 분위기의 춤을 보았다. 여자만이 아닌 남녀가 원을 만들어 노래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추는 八月踊(하치가츠오도리)은 마을에서는 가장 큰 축제였다.

등근 달이 뜨면 사람들이 북을 들고 마(マ-)라는 광장에서 남녀가 함께 단순한 북 리듬에 맞추어 자신들의 민요를 부르며 미묘하게 변화되는 동작의 춤을 춘다.

10-20여 명의 남녀노소가 원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복인 지진(ジジン)을 든 사람들이 북소리와 발 동작 리듬을 맞추면서 춘다. 처음에는 대체 4-5명이 북을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 줄곧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고 작은 원과 큰 원 두 개가 만들어진다. 안쪽 원에는 대체로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된다. 춤은 저녁 8시 경에 시작되면 12시까지 계속된다. 누구나 추고 싶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없이 나와서 춤을 출 수 있으며, 연장자가 앞서 리더를 하는 데 춤과 노래의 선두를 이끌어 나간다. 북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며 치는 방법은 특별한 훈련 없이 눈으로 익혀나간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강강수월래와 아마미 팔월용의 유사점을 기반으로 해서 두 춤의 문화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口碑傳承의 관점으로 기술하면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두 문화에 나타나는 민요를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강강수월래 기원에 대한 이설이 많은데 반해서 奄美의 팔월용은 순수하게 춤을 추는 데 의미를 두고 음악과 문학, 춤이 하나가 된 원시종합체 예술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곧 한국이든 奄美이든 원래 이러한 춤에는 인류 보편적인 심성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었다고 본다. 곧 한국의 강강수월래 역시 처음에는 춤의 원시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법하고, 두 춤의 특성, 기원, 춤의 진행을 살피는 과정에서 강강수월래 위상 정립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

또한 민족간의 노래 정서를 비교함으로써 보편적인 공통 정서와 자연과 역사의 차에서 벗어난 문화의 이질성도 검토할 수 있다.

II. 춤의 기원과 유래

팔월용 춤의 목적은 先祖에 대한 제사와 豊作을 감사하며 祈願의 성격을 띠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긴다라는 데 있다.

또한 이때는 이승과 저승 세계 사람들이 춤의 경합을 한다고 여기며, 이 춤의 경합에서 저승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추어야만 그 해 풍요가 든다라는 관념적인 사고가 遊戯祈願과 祭祀儀禮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춤의 원시적 성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 춤은 섬사람들 유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들 노래와 춤에는 그들만의 삶과 사고와 의식세계가 담겨있고 共同體意識을 반영한다

우선 강강수월래 춤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이론들을 소개하면,

- 1) 마한의 습속과 유사하여, 馬韓의 민요라는 점이다.²⁾
- 2) 원시 무용설로서, 宋錫夏는 “강강수월래 群舞는 原始 舞踊圈에 가장 많이 있는 형식으로 그 유래는 전세계에 帆布되어 있다”³⁾고 했다
- 3) 임진왜란 기원설, 곧 임진왜란 때 李舜臣 장군에 의해서 창안된 의병술로, 왜군에게 우리의 軍勢를 과장하기 위해 군량미를 쌓아놓고 여성들에게 群舞를 추도록 했다는 설로 전승과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향유층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설이다.⁴⁾
- 4) 원시무용 기원설과 임진왜란 때의 전술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종합설로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설이다.⁵⁾

위의 여러 제설들을 종합하고 비교해 보면 원시 농경사회에서 달을 중심으로 한 농사 풍요기원 의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달이라는 음의 생령력을 기반으로 한 군무는 원을 만들어 완성과 충만을 지향하는 의례적인 형

2) 咸和鎮, 『朝鮮音樂通論』, 을유문화사, 1948, 10 쪽.

3) 宋錫夏, 『朝鮮民俗考』, 1960, 150 쪽.

4) 박순호, “강강술래 小考”, 『한국민요학』, 제1집, 교문사, 1991, 5-7 쪽.

5) 任東權, “강강술래 考”, 『韓國民俗學論考』, 宣明文化史, 1971, 260-264 쪽.

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곧 팔월용과 강강수월래는 원시무용의 성격을 지닌 농경문화의 잔재로 풍요기원의 한 의례이면서 연희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일의 기원과 유래를 지닌 춤에서 강강수월래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군전술에 이용되었고 연희화 되었으며, 아마미의 팔월용은 원시 그대로 의례적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춤의 기원과 민속적인 배경

가. 팔월용

아마미 섬사람들의 일년 생활에 있어서 正月의 三 味線歌와 함께 음력 팔월 중심으로 행해지는 8월 오도리는 섬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연희행위이다.

年中 行事 특히 음력 팔월 아라시치(アらしチ), 시바사시(シバサシ) 이후 동가(ドンガ)일이나 음력 팔월 15일 주고야아소비(十五夜遊ビ)때 주로 추며, 또 9월9일 에비쓰 신사(嚴島神社)祭日때 신사를 정돈, 수리를 행하면서도 이 춤을 받친다. 이 춤은 남녀가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팔월 보름 이외의 다른 행사 때에도 종종 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춤이 추어지고 그에 따른 노래가 불려지는 기연을 살펴보면

1) 盆과 八月踊

일본에는 음력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先祖를 집에 모셔와서 잘 대접한 후 돌려보내는 盆행사가 있다. 이 때는 名頼市 등 도회에 나갔던 친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位牌가 있는 집에 모인다. 무카에봉(13일, 迎日)의 저녁에 燈을 들고서 제단이 있는 場所에 가서 신을 맞이 해 온 이후 14일에는 供養으로 茶, 菓子, 밥을 올린다. 그 다음날 오후리봉(15일, 送日)에는 선조를 墓로 모셔 간 후에 저녁 8시부터 12까지 팔월 오도리를 한다. 이 세상 사람과 저 세상 사람들이 경합을 벌이면서 아주 흥을 돋워서 춤을 춘다.

2) 아라시치와 시바세치, 동가의 八月踊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湊의 八月踊

아라시치(음력 8월 최초의 丙의 날, 火祭), 시바세치(아라시치 후의 丁의 날, 水祭) 동가(아라시치 후의 甲子의 날 地祭) 이 날은 각각 八月踊을 춘다. 이러한 의례는 豊年祈願, 惡靈逐鬼의 의미를 지니는 데, 벼 수확 후의 感謝의례라고 할 수 있다.

3) 十五夜遊와 八月踊

十五夜는 음력 8월 15일 밤을 말한다. 공민관 앞에서 쓰모를 행하고 그 중간에 八月踊을 한다. 또 이날에는 厄病神을 쫓기 위해서 쓰나히키(網引き, 줄다리기)를 한다. 쓰모가 끝나면 주로 남녀 어린아이들이 호각을 불면서 큰 소리로 주고야노(十五夜ノ)를 외치면서 마을을 순회한다. 그리고는 물가에 내려와서 줄에 불을 붙인 후 바다에 흘려보낸다. 이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데, 厄病神을 쫓는다는 뜻이다.

4) 嚴島神社와 八月踊

9월 9일, 神社를 정비하면서 八月踊을 받친다. 또 9월 9일 이후의 庚申(가노에 사루)일에 모야(喪屋)에서 庚申講이 있고 저녁에는 모찌(餅)모라이를 한다. 이 때 이동할 때에도 춤을 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력 9월 9일에 嚴島神社의 祭와 招魂祭와 豊年祭를 함께 하고서, 오전 중에 敬老會를 하고 오후에는 쓰모와 八月踊을 한다.

일년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반드시 八月踊을 추고 있다. 곧 八月踊은 단지 유희로써만이 아니라 신에 奉納한다는 의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의례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곧 신과 인간이 同樂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는 전통적으로 정월대보름, 추석 한가위, 단오 혹은 가을 달밤에 행해져서 대보름의 달과 관계가 깊다. 현재는 秋夕 뿐만아니라 광복절,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도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의도적인 연희 형태로 주로 행해진다.

우리 나라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의 민속학적인 의의는 풍년기원과 액땀, 국태민안으로 집약할 수 있고, 팔월 한가위는 햇곡으로 조상에 차례

를 지냄과 동시에 農神에게 풍요를 감사하고 내년엔 풍년을 축원하는 일종의 농경의례라 할 수 있다.⁶⁾

강강수월래는 둥근 만월의 상징성을 통하여 그 의미를 확대한 일종의 모의 주술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강강수월래 놀이가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적 분포는 전라남도의 光陽, 昇州, 谷城, 求禮, 康津, 潭陽, 長成, 海南, 靈岩, 務安, 羅州, 咸平, 靈光, 莞島 등으로 전남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⁷⁾ 그리고 경북지역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월위리청청의 원무로 바뀌게 된다.

원래 후렴구 '강강수월래' 語意에 대한 여러 설을 소개하면,

- 1) 强羌水越來, 임진왜란과 연결시킨 한학자들의 견해로 곧 "강적이 물을 건너서 온다"는 뜻으로 해석
- 2) 江羌水越來, 强羌水越來와 같은 유사한 의미해석으로, "강 건너서 오랑 개가 물을 건너 쳐들어왔다는 뜻
- 3) 강강술래에서 '강강'은 순우리말로, 周圍, 혹은 圓의 뜻을 가진 湖南의 방언이며, 술래는 巡邏의 뜻으로 '주위를 경계하라'라고 한다
- 4) 민요의 무의미한 후렴구의 반복으로 보면서도 강강술래는 "강한 적이라도 수월하네"로 보는 설⁸⁾이 있다. 대체적으로 후렴구 '강강수월래' 어의에 대한 해석은 임진왜란의 유래와 관련하여 '적군의 쳐들어옴'이란 이미지를 연상시켜 해석하고 있다.

팔월용의 가사에서도 노래 가사마다 가사의 뜻과는 관계없는 이와 같은 무의미의 구절이 붙는다. 그런데 그 구절은 의미라든가 어의 해석에 지나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후렴을 받을 때 '남생아 놀아라'의 뒷소리 처럼 앞에서 부른 구절을 다시 반복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女)

今年世や一 倉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축제』, 문화예술총서, 851 쪽.

7) 『朝鮮의 郷土娛樂』, 조선총독부, 1941.

8) 박순호, 앞의글, 10 쪽.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湊의 八月踊

來年世ぬ世や二倉

ハレ みつが世や三倉

みほなあがるヨホソノ

ハレみつが世や

(男)

ハラオセオセ

(女)

みつが世や三倉(소우시라레 중)

(女)

さくさくぬかばさ

餅がさぬかばさ

ヤハレ餅がさぬかばさ

(男)

ヤハレ餅がさぬかばさ

(女)

里うれてかばさ

十七八めらべ

(男)

ヤハレ十七八めらべ(사꾸사꾸누가바싸 중)

여성이 먼저 의미 있는 사설을 부르는데 앞서 부르는 전렴으로 볼 수 있는 하레(ハレ) 혹은 야하레(ヤハレ)를 부르고, 후렴으로 요호소노(ヨホソノ)를 사설에 붙여 사용한다. 여자들이 노래가 끝나면 남성들은 무의미의 句 하라오세 오세(ハラオセオセ)를 노래하거나 앞에서 불렀던 의미있는 구절인 '떡을 싸는 잎싸귀'라는 야하레모찌가사누가바싸(ヤハレ餅がさぬかばさ), '십칠팔세의 아가씨'라는 뜻의 주나나하찌메라베(十七八めらべ)를 반복한다.

IV. 춤의 진행과 유형

강강수월래나 팔월용은 민요를 기본으로 한 圓舞로서 여러 가지 유형의 동작과 음악, 연희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강강수월래는 원래 민요에 맞춰서 추는 춤이 있고 부속되는 놀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 꺾자', '청어 영자', '지와 밭기', '덕석 물이' 등 강강수월래 원래 춤의 성격과는 다른 놀이들이 수반되고 있다.

그런데 팔월용은 춤이나 놀이보다도 노래가 주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24 곡에 따라 춤동작이 미묘하고 섬세하게 달라지고, 가장 먼저 혹은 맨 나중에 추고 부르는 노래와 춤이 고정되어 있으나 그 외는 자유롭게 선창자가 이끌어 시작하는 대로 부른다. 그리고 음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북을 가지고 춤과 노래에 흥을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강강수월래

일반적인 강강수월래와 부속되는 연희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특히 수반되는 노래가사인 경우 노래위주라기 보다는 놀이위주라서 단순한 놀이 기능성이 나타난 사설이 나타나며 그 기능적 상황에 따라 가사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 1) 강강수월래-양팔을 벌리고 손을 잡아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소리 끈의 앞소리 사설에 맞추어 강강수월래 후렴을 놀이꾼들이 맞추어 부른다. 곡의 속도에 따라 진(늦은) 강강수월래, 중 강강수월래, 잦은 강강수월래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선소리 가사의 내용도 다양하다.
- 2) 남생아 놀아라- 남생이의 춤을 묘사한 樣擬舞이다. 놀이꾼들이 "남생아 놀아라, 절래절래 잘 논다"는 형식의 노래가 고정적으로 노래하면 '절래절래 잘 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춤을 잘 추는 몇 사람이 원 안에 들어와 춤을 춘다.
- 3) 고사리 꺾자(꺾자)-고사리를 꺾는 모습을 연희화 하였다. 주된 사설은 "고사리 대사리 끈자, 나무 대사리 끈자"하고 선소리를 하면 후렴으로 "아장장장 벌이어"를 한다.

- 4) 청어 영자(엮자), 청어 풀자- 서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청어를 엮는 모습과 청어를 푸는 모습을 묘사한 模擬戲이다.
- 5) 지와(기와)밟기- 일렬로 늘어선 후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뒷사람은 머리를 앞사람 왼쪽 허리 편에 댄다. 맨 나중에 사람이 양편에 지탱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서 다시 허리를 굽는다. 모인 전원이 이 놀이를 하는데, 여성의 生生力을 기반으로 한 풍요의 주술적 효과를 기원한 놀이라 할 수 있다.
- 6) 덕석 물이, 덕석 풀기-곡식을 거둬서 햇빛에 말리는 행위를 연회화 한 것으로, 농사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 7) 권권쥐새끼-권쥐는 들쥐를 가리킨다. “권권쥐새끼 째룩 째룩 가사리 고 부야”하고 설소리꾼이 노래하면 다른 놀이꾼들이 바로 같은 사설을 이어받거나 ‘위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선다. 그리고 선소리꾼이 “권권쥐새끼 잡자”라고 노래하면 줄의 가장 앞사람이 후미를 잡으려고 한다. 잡았을 때는 “권권쥐새끼 잡았네 콩하나 팔하나 땡겼더니 콩차두 팔차두 되었네” 하고 노래한다.
- 8) 문열어라-일렬로 선사람 중 두 사람이 팔을 위로 뻗어 大門의 형상을 만들면 다른 놀이꾼들은 허리를 잡은 채 들어간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하고 노래하면 다른 놀이꾼들은 “열쇠없어 못 열겠네” 하면서 지나는 사람을 문지기가 나꾸어 췌다. 잡힌 사람도 문지기가 되어 놀이가 계속된다.

이외에도 가마를 만들어 태우고 일정한 지점을 돌아오는 놀이인 가마등태우기나, 절구공이인 도곳대를 양편으로 나누어 잡아당기는 도곳대당기기가 부속된 놀이로 주로 행해진다.

나. 팔월용

주로 八月踊에 따르는 곡은 춤이 시작되어 가장 처음에 부르는 소우시라레(そうしられ)와 춤이 다 끝나고 헤어질 때 부르는 오보꼬레(おぼこれ)를 포함하여 24곡이 전해진다. 그리고 가네사루 때 부르는 오보꼬레를 가네사루오보꼬레(かねさるのおぼこれ)라고 한다. 노래 선택은 행사시 常會에서 엄선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춤을 추면서 선두자가 앞서 곡을 리더해 나간다.

24곡 가사유형과 내용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우시라레(そうしられ)- 八月踊 시작시 가장 앞서서 부르는 노래로 유가후(果報)를 기원하는 가사가 주가 됨.

2) 사꾸사꾸누가바싸(さくさくぬがばさ)-사꾸사꾸 골짜기에 나는 식물의 잎사귀를 말한다. 이 잎은 떡을 만들어 싸는데 이용한다. 떡과 잎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에 비유하고 있다.

3) 아리스마찌까나(ありすまちな)-나비와 꽃의 관계를 통해 연인들 사이의 애정을 표현한 노래

4) 오세하다리(おせはだり)-오세하다리는 노래의 분위기로 봐서 사람 이름으로 간주된다. “오세하다리는 왜 독약을 먹었을까?.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가사이다.

5) 이사다(いさだ)- 남편과 시어머니를 소재로 人事를 노래함

6) 테후리후리(手ふりふり)-오도리 연습과 춤추는 상황이나 분위기 등 구연현장을 묘사한 노래. 선조로부터 내려온 춤을 찬양한다.

7) 덴누데끼시끼(でんぬできし木)-나무 아래에서 아내와 칩을 대조하면서 인생의 고뇌를 노래한다.

8) 浜千鳥 (はまちぞら)- 물가에 앉은 千鳥의 울음을 듣고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또한 집을 떠난 나그네의 외로움을 주제로 하는데, 오기나와에도 추어지고 있음.

9) 메에하마가친꾸와(前浜(めえはま)がちんぐわ)- 앞 해변가의 물고기라는 의미로 물고기는 여성에 비유된다. 고미나토에서 만 불러지는 노래라고 한다.

10) 喜界灣泊り- 고미나토에서 바라다 보이는 섬인 喜界灣에 물이 적어서 벼농사의 어려움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는데, 2연과 3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 은혜를 노래하기도 함

11) 상야마곡꼬(三山(さんやま)ごこ)- 三山은 朝仁和 小宿 사이의 人家가 있는 작은 부락인데, 그곳의 胡弓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노래한 가사가 대부분이다. (호궁소리는 1리를 울리고, 1리 정도 앞서서 들은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있다.)

12) 아깡무라(赤ん村)- 노래 제목은 동쪽마을이라는 의미다. 사랑하는 여인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湊의 八月踊

의 얼굴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13) 잉카나하다(いんかなはた)-잉카나는 지명이고, 하다는 물이 깊은 산호초, 바다의 깊이와 인생 철학을 교훈적으로 표현한 노래

14) 슈미찌나까하마(鹽道長浜) - 말이 많이 나는 이 마을에 케사마츠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그 중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유혹하려다가 여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을 모르고 말고삐에 손과 발이 감겨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

15) 소쥬뉴 하나사께(そうちゅうぬ 花酌) 연인과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북을 치면서 노는 장면 묘사

16) 손가네꾸와(しゅんかねくわ) '어쩔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노래이다.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를 수 없는 사랑을 체념하는 가사가 주가 된다.

17) 西ぬ實久-西ぬ實久는 村 이름이다. 야마토 藩船이 마을을 지나다가 난파되었고, 금을 찾으러 가자는 내용의 노래이다.

18) 하다무찌오도리(はたむち踊)-노동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실짓는 여성'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

19) 슈둔나까하마(諸鈍長浜) 슈둔장빈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살고 있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 이 곳은 아주 길게 뻗은 池地로서 너무도 경치가 아름답다. 가사에서도 長浜에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애인의 옷을 때 내비치는 하얀 이빨에 비유하여 묘사한다. 오끼나와의 춤 순도의 한 節이다.

20) 이마노오도리(今の踊り)-오도리를 추는 현장을 그대로 묘사하고, 춤의 일반적인 특성인 순수와 자연성 또는 중요성을 노래함

21) 가네누쿠사리(金ぬくさり) 금으로 만든 사슬의 엮어진 강도와 자신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

22) 우미노사사꾸사(海のささくさ)-바다의 해초는 작은 물고기가 부화하는 장소이고, 어머니의 품은 자신을 키운 곳이라고 노래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다.

23) 우라토미(うらとみ) 전설적인 여주인공이다. 침략의 역사를 반영한 노래이다. 샤츠마 代官이 파견되었을 당시 결혼하기 전 여자이든 결혼한 여성이든

지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뽀뽀나가 수청을 들어야 했는데, 수청을 들 수 없다고 항거하다 배를 타고 도망쳤다.

24) 오보꼬레(おぼこれ) 길에서 헤어져 집으로 들어갈 때, 혹은 춤이 끝나서 헤어질 때 부르는 이별의 노래이다. 쌀의 풍작을 축복하고 마을 전체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복과 기원의 노래라 할 수 있다.

V. 춤 형식과 음악적인 특성

全南 南海 珍島의 강강수월래나 慶北 盈德 월월이청청, 江原道 江陵의 고사리 격기 등의 노래와 함께 추는 輪舞는 주로 오른편으로 돈다.

고미나토의 팔월용 역시 모두 원을 만들어 주로 오른편으로 돌아나간다. 노래의 속도에 따라 보통 걸음걸이 정도에서 빨라지기도 하는 데, 팔월용은 박자에 맞춘 걸음걸이의 속도를 북을 가지고 맞추어 나가도록 한다. 춤의 과정에서 왼쪽(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돌아나가기도 하지만 주된 방향은 오른편이다.

李 輔亨은 춤에 있어서 左右방향의 문화적 상징성을 살핀 바 있다. 右편을 바른 편, 正方向으로 칭하고, 이러한 윤무나 회전 행위는 “높은 神을 칭하고, 북을 기원하고, 번영이 인간생활에 실제로 구현하는 축원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상징성은 회전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회전 방향의 차이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⁹⁾

강강수월래는 음악의 속도에 따라 진(늦은) 강강수월래, 중 강강수월래, 잦은 강강수월래로 나뉜다. 늦은 강강수월래인 경우는 진양조 가락이 주가 된다. 곧 설소리꾼인 메김소리를 하는 唱者가 진양조로 느릿하게 메기면 후렴구를 부르는 아낙들도 진양조로 받게 된다.

중 강강수월래인 경우는 설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노래하면 동작이 빨라지고 어깨놀림도 빨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잦은모리 가락으로 속도가 급해지면 손을 빨리 되어 원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고미나토 팔월용에서도 곡마다 아라시(あらし)가 있는데, 이는 동일 곡이라

9) 李輔亨, “韓國 祭儀式과 演戲와 民俗놀이에서 右回轉과 左回轉의 象徵性”, 『亞細亞 民俗國際學術大會』 발표요지, 170-171 쪽.

도 갑자기 곡의 속도를 빠르게하여 흥을 일으켜서 춤이 느려짐과 지겨움을 막는 역할을 한다. 가사인 경우 아라시에서는 가사가 거의 고정된다. 가사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 구즈시(ぐずし)가 있다. 곧 지속되는 가사의 지겨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즉흥가사가 구전되면서 다시 고정되는 전승의 원리를 잘 보여 주는 부분이다.

Ⅵ. 가사의 특성

민요는 기능성과 가사, 음악의 세 측면의 연구가 가능하다. 무용을 위한 음악, 곧 동작과 음곡과 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곡에 따라서 여러 편의 歌詞가 있다.

두 춤은 무용유희요로서 유희적 성격이 강하다. 유희요의 특성 중에는 남녀간의 모임 혹은 여성놀이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향유자들의 의식이 들어난다고 할 수 있겠다.

奄美 역시 네세모라베아소비(ネセモラベアソビ)에서 남녀 모임이 인정되었고 이 놀이 공간을 통해서 남녀의 연애가 허용되었다. 한편 조선조라는 봉건사회에서도 강강수월래의 놀이공간은 여성들에게 자유롭거나 당연한 놀이공간으로 이해되었다.¹⁾

일반적인 무용요의 기능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 강강수월래와 팔월용 사설의 특성은 춤추는 동작과 무용이 진행되는 시·공 표현 혹은 기능성을 재현(Representation)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주된 표현은 남에 대한 연정과 그리움, 애정표현, 사람살이에 따른 제반 人事와 교훈이 들어있는 사실과 서사요나 다른 기능요에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 혹은 고정된 레파토리의 민요 예를들면 '나물캐는 처녀' '카나요'와 같은 노래가 불러지게 되는 것이다. '나물캐는 처

10) 강강수월래 가사 중 우리 아베 놀러가까(강강수월래) 질에 질목 지키제마는// 우리어매 놀러 갈까// 발에 발질 뽕데마는// 못 이기네 못 이기네// 말한티는 못 이기네// 노세 노세 젊어 놀아//출가해 빌면 못 논단다//(MBC, 한국민요대전2 전라남도편, 1993, 484 쪽)

녀'는 남성과 여성의 문답체 형식을 통해서 불려지는 구혼의 노래이고 '카나謠'는 사랑하는 사람의 對稱인 '카나'를 향해 부르는 사랑노래를 통칭한다.

가. 八月踊

1) 춤이나 노래에 대한 일반적인 思考와 춤의 전통성. 춤추는 현장을 표현한다. 곧 춤과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의 삶과 和解를 노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앉아서 노래하면 다리가 아파서 신명나게 춤추자
춤안 추고 있으면 향토가 저칠고 우리들은 어우러져 춤추자(오보꼬레(おぼこれ))
- 누가 시작했을까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조상들이다.(手ふりふり)
지금의 춤은 무동이 다 모였으니 배우고 싶으면 지금 배워라.(今の踊り)
- 손을 이리저리 연습해요 노래도 연습해 틀리지 않게.(手ふりふり)
- 우라토미 춤은 어떤 춤일까 왼발을 먼저하고 오른발은 나중한다.
우라토미(うらとみ)
- 아라시를 추면서 당신과 함께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닭이 울 때까지
(아라시 중에서)
- 춤을 좋아하는 나는 그치라고 해도 그칠 곳을 몰라 섬의 끝까지라도
찾아 가서 춤추리(西ぬ實久)

2) 남녀의 연애에 관한 노래들이 많다. 남녀의 사랑 노래는 사람들이 삶에 역동성을 부가하는 원천이 된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호칭은 '加那'로 부른다. 성교가 비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노래의 우타가케¹¹⁾를 통하여 남녀가 함께 노래를 주고 받는 식으로 노래를 하며 남녀가 하나가 된다.

특히 과거의 젊은 남녀들은 남녀 연애가 금기시 되었고, 단지 내세모라베아 소비(ねせもらべあそび) 때만 허락이 되었다. 그러한 성격이 강한 사설들을 나열하면

- 17, 8세의 여자들이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랑 밤이 오면 나도 자유가 되리(さくさくぬがばさ중)
- 나비아 정원의 꽃으로 날아라 나를 향해서도 날아라(ありすまちな중)

11) 남녀가 서로 노래 한 소절씩을 나누어 부르면서 주고 받는 식으로 한다.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湊의 八月踊

- 사미센을 꺼내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노래를 기다리는가 애인을 기다리는가(しゅんかねくわ 중)
- 결창을 열고서 어떻게 해도 참을 수 없어 기다리는 것은 요원한 일
오늘 밤도 밤바람이 거칠어 보지 못하고 마는가(しゅんかねくわ 중)
- 치면 치고 싶고, 올리면 밤 늦게 올리는, 기대면 기대고 싶은 카나의 어깨
복을 치면 1리까지 올리고 나도 1리를 들으면서 온다((そうちゅうぬ 花酌 중).
- 赤村의 자매는 얼굴이 아름다운데, 눈과 같은 흰 이빨을 가졌다. 자매에
홀려서 연정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그리워한다.(赤ん村 중)
- 물고기가 있어서 바라보기 만 하는 것은 안타깝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먹이를 뿌려서 잡아야지, 먹이 주머니는 냄새나는 주머니(前浜(めえは
ま)がちんぐわ 중)
- 오세하다리는 멀리에 있어도 생각나는 사람,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면 가
까이 있게 된다. 인연은 사모하는 사람을 함께 가게 하는 걸까, 그림자는
남기고, 인연은 함께((おせはだり중)

3) 교혼적인 혹은 인간사를 노래를 통하여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승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는데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 서로 정다워질려고 애를 써도 인연이 없으면 정들기가 어렵고,
헤어질려고 애를 써도 인연이 있으면 헤어지기 어렵다.
- 내가 꽃이라면 아버이는 늙어가고
나이가 든 아버이는 가장 큰 도움이셨다(喜界灣泊り중)
- 鹽道長浜에 아무리 말이 번성하고 피곤하여도 그
말을 함부로 타서는 안된다.(鹽道長浜 중)
- 바닷가에 누워 풀잎을 베게 삼았건만
포근한 부모님 걸 꿈에도 잊혀지지 않네. (浜千鳥 (はまちぞら)중)
- 놀이를 마치고 돌아 갈려면 모든 이의 얼굴이 보여서 돌아가기 싫고, 있으려고
하면 남편의 모습이 떠오른다.(어느 곡에나 자주 등장하는 노래 공통가사)
- 칠 척이나 되는 깊이가 더 할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세상일은 더욱더 적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4) 인물전설처럼 서사적인 내용을 서정화 시켜 노래가사로 차용 서정화 하

는 기법이 특이하다.

우라토미(うらとみ) 인물전설을 가지고서 주된 모티프를 차용하여 서정화시켜서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었다. 노래하는 집단은 그 이야기를 알고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정서 혹은 분위기에 호소하고 감동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슈미찌나카하마(鹽道長浜)가 있다. 케사마츠의 전설을 노래한 것인데 가사를 보면

- 슈미찌나카하마(鹽道長浜) 에는 童(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케사마츠 땀 냄새 때문이다.(鹽道長浜)

노래 가사 중에서 童은 청년들을 뜻하고, 땀냄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매력있는 여성을 의미한다.¹²⁾

5) 풍요기원

노래가사의 상징성을 통해 풍요기원의 염원을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쌀의 풍요를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한 情을 내년에도 쌀로 결실맺게 하세요(오보꼬레(おぼこれ)중)

나. 강강수월래

1) 강강수월래의 가사에도 춤추는 동작, 그리고 춤추는 현장성을 묘사한다. 달이 떠오르는 상황과 時·空의 묘사가 현장감 있게 그려진다. 또한 춤동작을 그대로 노래가사로 전달하기도 한다. 동작 묘사, 놀이 진행과정이 흥미있게 언어를 통해 묘사된다.

- 옥신옥신 뛰어보세(강강수월래), 얇은마당 높아지게(//)
높은마당 깊어지게(//), 옥신옥신 뛰어보세(//)
- 달떠온다 달떠온다(//) 동해동천 달떠온다(//)
- 대밭에는 대도총총(//) 하늘에는 별도총총(//)
꽃밭에는 꽃이총총(//)

12) 小川學夫, 平成11년(1999), 『奄美しまうたへの招待』, 春苑堂出版(鹿兒島), 196 쪽.

강강수월래와 日本 奄美 小瀨의 八月踊

- 노다 좋다 젊어 놀자 아홉가닥 머리 따서
석자시치 댕기 디레 발뒤축에 짹짹 킁키고
이리도 뛰고 궁둥이 맞고 저리도 뛰도 발 맞인다.¹³⁾

2) 님에 대한 그리움, 연정을 노래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가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레파토리이다. 님의 상실로 빚어지는 고독감, 님과 이별의 심회 혹은 님과의 동반을 기대하는 심정을 자연물을 통해 묘사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 놓는다.

- 저달은 누달인가 방호방네 달이라네
방호방은 어디가고 저 달 뜬 줄 모르는가
- 오동추야 달은 밝고 우리님 생각 절로 난다
너를 주려고 해온 보선 너 안주고 뉘를 줄까
- 유꿈유꿈 유자나무 백년새가 앓어 우네
나도 역시 어릴 때는 저 새 소리 했건마는
각시님이 되고 본 께 어른님만 따라간다.

3) 人事나 教訓

강강수월래 사설에는 고정된 사설 뿐만아니라 자유롭게 즉흥적인 사설구연이 가능하다. 고흥지역에는 남편이 객지에 가서 바람이 나는 상황, 죽음을 맞는 상황을 나열하며 자신의 시집살이를 친정식구들에게 알려 달라는 다양한 人間事가 표출되는 반면¹⁴⁾ 부모에게 효도하는, 혹은 일반적인 교훈도 노래로 불려진다.

- 수양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아배 반찬하세, 우리엄마 반찬하세(강강수월래)
- 높은 나무 앓은 새는(술래) 바람 불까 수심이요//
삼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동네방네 부자들// 도둑 들까 수심이요//

13) 『한국민요대전』 2, 484 쪽.

14) 『한국민요대전』 2, 120-121 쪽.

물꼬 밑에 폼사리// 가뭄 들까 수심이요//¹⁵⁾

4) 서사적인 노래나 기존의 전해지는 민요 가사의 차용

‘베를노래’나 ‘나물캐는 처녀노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사모요’ 등 기존의 고정된 노래를 강강수월래 후렴과 같이 붙여서 노래하는 경우들이 다.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춤추는 사람들이 동일시된 정서를 이용하여 일체감을 얻게된다.

- 나주심산 진골목에(강강수월래) 은또가리 팔에 걸고 (//)
지추캐는 저 큰아야 (//) 니어집이 니 어디냐 (//)
내아집을 찾으려면 (//) 검은구름 방골속에 (//)
열두칸 지와집에 (//) 아홉칸 대목방에 (//)
화초병풍 둘러치고 (//) 나귀에 핑경달고 (//)
잉그렁그렁 그 소리듣고 날을 만나 찾아오게 (//) (나물캐는 처녀 차용)
- 저기 가는 저 생여야(강강술래)
늙은이나 소년이나 (//)
황천질에 가거들랑 (//)
우리 엄매 만나거든 (//)
병에다가 젖을 짜서 (//)
울음으로 마개 막아 (//)
무지개로 끈을 달아 (//)
안개 속에 보내주소¹⁶⁾ (//)

5) 풍요기원

직접적으로 풍요 기원 사설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와밧기’ 혹은 ‘청어엮기’ 쥐잡기놀이’ 연희속에 나타난 놀이진행을 위한 사설의 상징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생성력을 기반으로 한 기와밧기 연희,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청어엮기’, 곡식을 햇빛에 널고 말리는 과정을 연희화 한 ‘덕석물이’, 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병충해의 구제를 위한 ‘쥐잡기’ 등을 통해 풍요기원의 모티

15) 『한국민요대전』 2, 583 쪽.

16) 『한국민요대전』 2, 343 쪽.

브를 추정할 수 있다.

- 청청 청애 풀자 위도 군산 청애풀자.
청청 청애 풀자 위도 군산 청애풀자
- 몰자 몰자 덕석 몰자(몰자몰자 덕석몰자)
풀자 풀자 덕석 풀자(풀자풀자 덕석풀자)
- 권권취새끼 잡았네
콩하나 팥하나 멩겼더니 콩차주 팥차두 되었네

Ⅶ. 결어

강강수월래와 八月踊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춤의 起緣과 민속적인 배경을 살피고, 춤 유형과 민요 가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교결과를 항목으로 정리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가. 八月踊 춤은 남녀가 '마'라는 넓은 장소에 모여서 춤을 추면서 先祖에 대한 제사와 풍작을 감사하고 기원한다. 여성에 의해 추어지는 강강수월래 역시 농경문화의 잔재로 풍요기원의 연회기능과 임진왜란 때 軍戰術로 채택되었던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나. 八月踊은 주로 음력 7월 15일 盂과 음력 8월 15일 주고야 아소비 때 행해지며, 강강수월래 역시 음력 8월 15일 추석명절이나 정월대보름, 단오 때 등에 행한다.

다. '강강수월래'는 메김소리에 대한 후렴구로서 뒷소리의 역할을 하는데, 八月踊에서도 노래 앞에 붙는 전렴이나 뒤의 후렴구가 종종 의미없이 혹은 의미있는 사설을 다시 부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라. 八月踊은 연회적 성격보다는 노래가 主가 되는데 반해, 강강수월래는 노래보다는 놀이의 연회 기능이 주가 됨을 볼 수 있다.

마. 八月踊이나 강강수월래 모두 오른 편(시계도는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주로 춤을 추는데, 이는 신에 대해 축원하는 행위의 춤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다.

바. 음악적으로 박의 속도 조절은 춤과 노래에 흥을 더하여 지겨움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진, 중, 잦은 강강수월래가 있고 八月踊에는 아라시가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대신한다.

사. 본고는 몇가지 연구를 과제로 남긴다. 한국과 일본춤 문화의 수수와 전파, 혹은 문화적인 보편성, 춤 유형이나 동작의 의미, 음악적인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또 오끼나와와 아마미 제도에 산재한 八月踊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면, 八月踊에 대한 面貌가 분명해질 것이다.

주요 면담 대상자

- 富國男, 昭和 6年(1931년)生, 男
東豊彦, 大正12年(1923년)生, 男
肥後, 大正13年(1924년)生, 女
富綱サカ, 昭和8年(1933년)生, 男

참고문헌 및 자료

(일본어판)

- 松原武實, 平成5年(1993)『名頼市 小湊の 八月踊り 歌詞集』, 『南日本文化 26』, 鹿兒島短期大學 附屬南日本文化研究所.
小湊郷友會編, 『うやほじの』, 『八月踊り 歌集』, 海觀書.
池田嘉成, 平成2年, 『しまうた 教室資料』, 南海春秋社.
『名頼市 小湊の 八月踊歌』 1, 2테입.
『奄美大島佐仁(二區) 八月踊り』 1, 2테입.
小川學夫, 平成11年(1999), 『奄美しまうたへの 招待』, 春苑堂出版(鹿兒島).
小川學夫, 1981, 『奄美의 島唄 - 其의 世界와 系譜』, 根源出版(東京).
小川學夫, 昭和 64年(1989), 『歌謠(うた)의 民俗, 奄美 歌唄』, 雄山閣, (東京).
文朝光, 昭和 58年(1983), 『奄美大島民謠大觀』, 南海文化研究所(鹿兒島).

(한국어판)

- 문화재관리국, “놀이와 의식편”, 『중요무형문화재해설』, 1985.
박순호, “강강술래 小考”, 『한국민요학』, 제1집, 교문사, 1991.
李輔亨, “韓國 祭儀式과 演戲와 民俗놀이에서 右回轉과 左回轉의 象徴性”, 『亞細亞民俗國際學術大會』 발표요지, 1997.
任東權, “강강술래 考”, 『韓國民俗學論考』, 宣明文化史, 1971.
『朝鮮의 郷土娛樂』, 조선총독부, 1941.
최인학, 『비교민속학과 비교문화』, 민속원, 199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축제』, 문화예술총서,
咸和鎭, 『朝鮮音樂通論』, 을유문화사, 1948.
MBC, 『한국민요대전』 2, 전라남도 민요해설집, 1993.